

제17장

한육우, 돼지, 젓소 수급 동향과 전망

이형우*·지선우**·김충현***·강지석****

1. 한육우

- 1.1. 소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 1.2. 소고기 대내외 여건 변화
- 1.3. 소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2. 돼지

- 2.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 2.2. 돼지고기 대내외 여건 변화
- 2.3.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3. 젓소

- 3.1. 젓소 사육 및 원유 수급 동향
- 3.2. 원유 및 유제품 대내외 여건 변화
- 3.3. 원유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bsn0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goldbl@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jskang@krei.re.kr

요약

1) 한육우

- 2021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58만 5천 마리로 2020년보다 5.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한우 마릿수는 340만 8천 마리로 추정된다.
- 2021년 한우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만 1,169원으로 2020년보다 6.4%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취식 비중 증가와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한우고기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 소이력정보(2021년 12월 말 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를 이용한 한육우 사육 구조 분석 결과, 향후 10개월 내에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임암소(15개월령 이상)는 162만 6천 마리로 2020년 대비 5.2%, 평년 대비 14.4% 증가하였다. 가임암소 증가로 2022년 송아지 생산 마릿수는 202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에 도축 가능한 18개월 이상 수소 사육 마릿수는 55만 마리로 2021년 대비 6.3%, 평년 대비 10.7% 증가하여 2022년 수소 도축 마릿수는 202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18개월 이상 암소 사육 마릿수가 전년보다 5.0% 증가하여 2022년 암소 도축 마릿수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가임암소와 송아지 생산 마릿수 증가로 2021년보다 2.4% 증가한 348만 9천 마리로 전망된다.
- 2022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2021년 대비 9.4% 하락한 kg당 1만 9,185원으로 전망된다. 1분기 도매가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가정 내 소비 지속으로 2021년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되지만, 출하 가능 마릿수가 점차 많아지는 2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

- 2021년 등급 판정 마릿수는 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 마릿수 증가로 1,837만 마리였다. 2021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등급 판정 마릿수 증가하였으나 도체중 감소로 2020년 99만 1천 톤 대비 0.2% 감소한 98만 9천 톤이었다.
- 2021년 돼지 도매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소비가 늘어 2020년 4,185원/kg(탕박, 제주도 제외) 대비 12.8% 상승한 4,722원이었다.
- 2021년 11월 말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 이력정보) 분석 결과, 2022년 5월까지 출하가 가능한 자돈·육성돈·비육돈 사육 마릿수는 1,078만 마리로 2021년(1,055만) 대비 2.1%, 평년(1,060만) 대비 1.7% 많은 상황이다. 2022년 상반기 돼지 등급 판정 마릿수는 모돈 수 증가로 2021년 동기 대비 0.5%, 평년 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하반기에는 모돈 수 증가 추세 둔화, 작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 판정 마릿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량 증가로 2021년 (4,722원) 대비 하락한 4,300~4,500원/kg으로 예상된다.

3) 젓소

- 2021년 젓소 사육 마릿수는 2020년(41만 마리) 대비 2.0% 감소한 40만 1천 마리였다. 2세 미만 사육 마릿수는 2020년(15만 6천 마리) 대비 1.1% 감소한 15만 5천 마리였고, 2세 이상 사육 마릿수는 2020년(25만 4천 마리) 대비 2.6% 감소한 24만 7천 마리였다.
- 2021년 원유 생산량은 착유우 마릿수가 줄어 2020년(208만 9천 톤) 대비 2.6% 감소한 203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22년 원유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와 마리당 산유량 감소로 2021년 대비 4.1% 감소한 195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1.1. 소고기 수급 및 가격동향

1.1.1. 한육우 사육동향

-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 저점에서 2016년 반등하기 시작하여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358만 5천 마리였다. 이중 한우 마릿수는 340만 8천 마리로 추정된다. 1세 미만 마릿수는 100만 마리를 초과하였으며, 가임암소 마릿수도 163만 4천 마리로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 2020년까지 한육우 사육 농장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2021년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사육 농장수 증가에도 전체 사육 마릿수가 더 많이 늘어 전년 대비 1.8마리 증가한 38.3마리였다. 이는 한우 가격 강세로 송아지 입식이 증가하였고 암소 도태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 규모별 사육 농장수를 살펴보면 소규모 농장은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50두 이상의 전업 농가는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100두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사육 규모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표 17-1] 한육우 사육 마릿수 및 사육 농장수 동향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마리,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우 사육 마릿수	3,408	3,227	2,970	5.6	14.7
1세 미만	1,003	962	867	4.3	15.7
1~2세	949	897	827	5.8	14.8
2세 이상	1,456	1,369	1,277	6.3	14.0
가임암소	1,634	1,548	1,428	5.6	14.5
육우 사육 마릿수	177	168	155	5.2	14.3
사육 농장수	94	93	96	0.5	-2.8
농장당 사육 마릿수	38.3	36.4	32.4	5.0	18.1

주 1) 사육 마릿수는 12월 1일 기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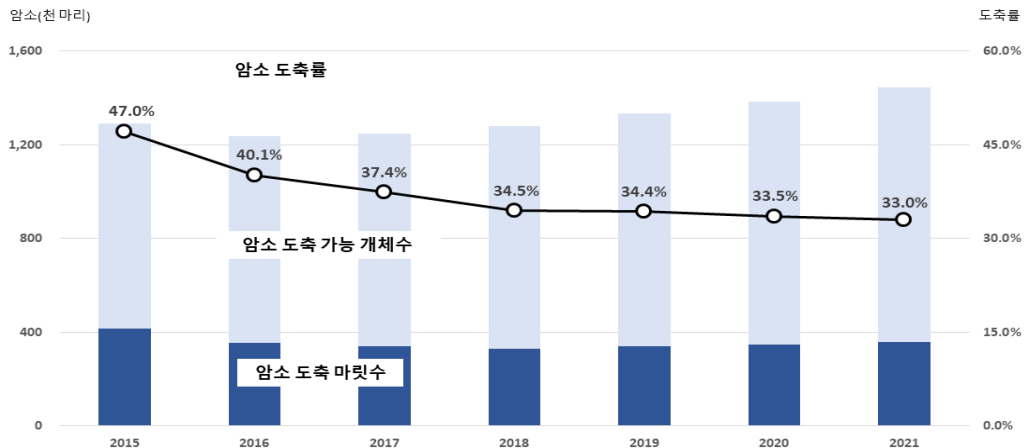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3)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KREI 농업관측센터

- 암소 도축률은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3.0%였다. 이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번식의향이 높아 암소 도태를 늦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7-1. 한우 암소 도축 비율 추이



주 1) 암소 도축 마릿수는 등급 판정 마릿수임.

2) 암소 도축률은 당해년 1~12월 암소 도축 마릿수에서 전년 12월 암소 도축 가능 개체수(30개월령 이상)를 나누어 계산한 비율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1.2. 소고기 수급 동향

- 2021년 한육우 도축 마릿수(등급 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4.5%, 평년 대비 5.7% 증가한 87만 2천 마리였다.
 - 한우 도축은 79만 4천 마리였으며 그중 한우 암소 도축은 35만 9천 마리로 전년 대비 3.4%, 평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수소(거세우 포함)는 전년 대비 4.8%, 평년 대비 6.5% 증가한 43만 5천 마리였다.
 - 육우 도축은 전년 대비 8.1%, 평년 대비 9.7% 증가한 7만 8천 마리였다.
- 거세우 도체중량은 2020년 447kg에서 2021년 454kg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거세우 평균 출하월령은 30.2개월로 전년보다 0.1개월 증가하였다.

[표 17-2] 한육우 등급 판정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마리, kg,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육우 등급 판정 마릿수	872	835	823	4.5	5.7
한우 암소	359	347	343	3.4	4.8
한우 수소	435	416	409	4.8	6.5
육우	78	72	71	8.1	9.7
거세우 도체중량	454	447	443	1.6	2.4
거세우 평균 출하월령	30.2	30.1	30.5	0.3	-1.0

주: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1년 소고기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2%, 평년 대비 12.1% 증가한 71만 6천 톤이었다.
- 2021년 국내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와 도체 중량 증가로 전년 대비 6.1%, 평년 대비 9.7% 증가한 26만 4천 톤이었다.
- 2021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소고기 가격 강세 지속과 함께 집밥 수요 등 수입육 수요 증가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수입국 별로 살펴보면 호주산은 2020년 수입량이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함께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선을 우리나라로 일부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미국산은 11.5% 증가하였다.
- 2021년 냉장 수입량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만 9천 톤이었다. 구이류 등이 주로 수입되는 냉장 수입량의 경우 2021년 10월까지의 수입량이 2020년 한 해 동안의 수입량을 초과하였다.
-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은 호주산이 35.4%로 전년보다 2.4%p 하락한 반면, 미국산은 56.3%로 전년보다 1.8%p 상승하였다.
- 2021년 소고기 자급률은 국내산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폭이 더 커 전년 대비 0.4%p 하락한 36.8%로 추정된다. 2021년 1인당 소비가능량은 국내산 공급 및 수입 소고기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한 13.8kg으로 추정된다.

[표 17-3] 소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정육 기준), kg,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공급량	716	668	639	7.2	12.1
국내 생산량	264	249	240	6.1	9.7
수입량	453	419	399	7.9	13.5
자급률	36.8	37.2	37.6	-1.1	-2.1
1인당 소비가능량	13.8	12.9	12.3	7.0	11.9

주: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1.1.3. 한우 산지가격 및 소고기 가격

- 2021년 한우고기 도매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농가의 입식의향이 높아져 송아지 산지 가격 또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암송아지와 수송아지(6~7개월령) 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5.6%, 5.9% 상승한 363만 원, 455만 원이었다.
- 암소 큰 소(600kg) 평균 가격은 번식의향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6% 상승한 646만 원

이었으며, 수소는 한우고기 도매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5.3% 상승한 628만 원이었다.

[표 17-4] 한우 산지가격 동향

단위: 만 원,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등락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암송아지	363	344	309	5.6	17.6
수송아지	455	430	379	5.9	20.1
암소	646	611	570	5.6	13.2
수소	628	545	528	15.3	18.9

주 1) 송아지 가격은 6~7개월령 기준이며, 큰소 가격은 600kg 기준임.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협중앙회

- 2021년 한우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만 1,169원으로 전년 대비 6.4% 상승하였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이 8.1%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1⁺등급, 1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 가격 상승으로 육우 가격 또한 전년 대비 8.6%, 평년 대비 16.1% 상승한 1만 1,649원이었다.
- 고급육인 1⁺⁺등급 출현율 증가는 2021년 한우 평균 도매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취식 비중 증가와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한우고기 수요는 전년 대비 높았기 때문이다.

[표 17-5]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단위: 원/kg,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등락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우 전체 평균	21,169	19,891	17,951	6.4	17.9
1 ⁺⁺ 등급	25,182	23,302	21,308	8.1	18.2
1 ⁺ 등급	22,746	21,504	19,538	5.8	16.4
1등급	20,983	19,997	18,088	4.9	16.0
2등급	16,673	16,050	15,214	3.9	9.6
3등급	12,937	12,443	12,039	4.0	7.5
육우 전체 평균	11,649	10,727	10,031	8.6	16.1

주 1) 등급별 가격은 결함, 도태권고우를 제외한 가격임.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1년 한우 등급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1⁺등급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등급, 1⁺⁺등급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1⁺⁺등급은 전년보다 1.3%p, 1⁺등급은 0.3%p 증가한 반면 1등급 이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6] 한우 등급별 출현율

단위: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차이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 등급	23.8	22.5	12.7	1.3	11.2
1 ⁺ 등급	25.8	25.5	29.7	0.3	-3.9
1등급	25.3	26.1	29.3	-0.8	-4.0
2등급	17.5	18.2	19.5	-0.7	-1.9
3등급	7.3	7.3	7.4	0.0	0.0

주: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1.4. 소고기 소비행태 분석

- 2021년 소비자 조사 결과¹⁾ 국내산 소고기 구매는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수입 소고기 구매는 소폭(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득수준별 구매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산의 경우 6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가 3.6%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400~600만 원 미만 3.3%, 200~400만 원 미만 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는 1.9% 감소하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구매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 수입 소고기의 경우 400~6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가 2.6%로 증가하였으며, 6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0.3%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200만 원 미만 가구와 200~4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년보다 각각 0.5%,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고기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가격(32.0%)’이 가장 높게 나타나,

1)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4~5일 2일간 온라인으로 국산 및 수입 육류의 소비 비중, 유류와 유제품 소비현황, 2022년 육류 구매의향, 소고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선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했던 2020년 조사와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가격 강세가 소고기 구매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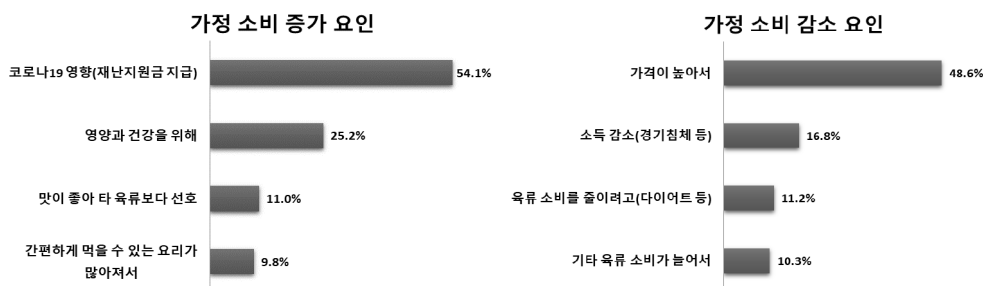
[표 17-7] 2021년 소득수준별 소고기 구매량 변화 [표 17-8] 소고기 구입시 고려사항

소득수준	국내산(%)	수입(%)	구분	우선순위(비중)	
				2020	2021
200만 원 미만	-1.9	-0.5	가격	2(31.2%)	1(32.0%)
200~400만 원 미만	1.4	-1.8	신선도	1(31.3%)	2(30.5%)
400~600만 원 미만	3.3	2.6	품질등급	3(21.4%)	3(22.5%)
600만원 이상	3.6	0.3	안전성	4(12.8%)	4(11.4%)
			브랜드	5(3.3%)	5(3.6%)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국내산 소고기 구매 증가 이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소비 증가(국민지원금 지급 등)’가 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가 25.2%, ‘맛이 좋아서’가 11.0% 순이었다.
- 한편, 감소 이유로는 ‘소고기 가격이 높아서’가 4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소득감소(경기침체 등)’가 16.8%, ‘육류 소비를 줄이려고’가 11.2%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가정 내 소고기 소비 중 국내산과 수입 소고기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산 소비 비중은 65.0%로 2020년(64.1%)보다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국내산 소고기 소비가 2021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7-2. 가정 내 국내산 소고기 구매량 변화 요인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한우와 수입 소고기 등심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WTP) 조사 결과, 한우는 100g 당 1⁺등급 12,711원, 1등급 10,284원, 2등급 8,519원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소고기는 냉장 100g 당 호주산 6,415원, 미국산 6,061원으로 나타났다.
- 한우 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은 미국산 소고기에 비해 1.4~2.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소고기 사이에서는 호주산 소고기가 미국산보다 1.06배 지불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9] 한우고기와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 금액

구 분	한우 1 ⁺ 등급	한우 1등급	한우 2등급	호주산	미국산
지불의사금액(100g당)	12,711원	10,284원	8,519원	6,415원	6,061원
미국산 대비 지불의향 수준	2.10배	1.70배	1.41배	1.06배	-

주: 한우고기와 수입 소고기는 냉장 기준으로 조사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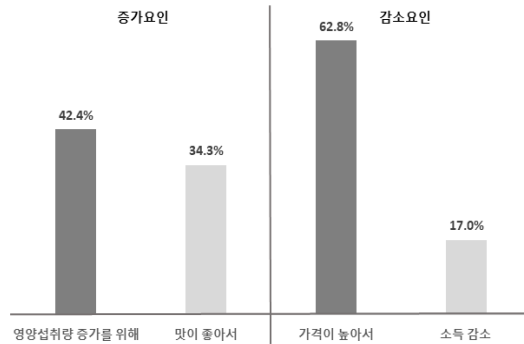
- 2022년 국내산 소고기 구매 의향은 전년보다 0.5% 증가하여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입 소고기의 경우 4.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별 구매 의향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산의 경우 고소득층 구간에서 구매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6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가 전년보다 1.8% 늘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0~600만 원 미만은 0.7%로 전년보다 소폭 늘릴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200~400만 원 미만은 0.2%, 2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는 0.4%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입 소고기의 경우 전 소득 구간에서 구매를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는데, 200~400만 원 미만이 6.7%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6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가 6.0%, 200만 원 미만이 3.5%, 400~600만 원 미만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국내산 소고기 구매 의향 증가 요인으로는 ‘영양섭취량 증가를 위해’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맛이 타육류보다 좋아서’가 34.3%로 그 뒤를 이었다. 감소 요인의 경우, ‘소고기 가격이 높아서’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득감소’가 17.0%로 조사되었다.

[표 17-10] 2022년 구매의향 조사 결과

소득수준	국내산(%)	수입(%)
200만 원 미만	-0.4	-3.5
200~400만 원 미만	-0.2	-6.7
400~600만 원 미만	0.7	-2.2
600만원 이상	1.8	-6.0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그림 17-3. 국내산 구매의향 변화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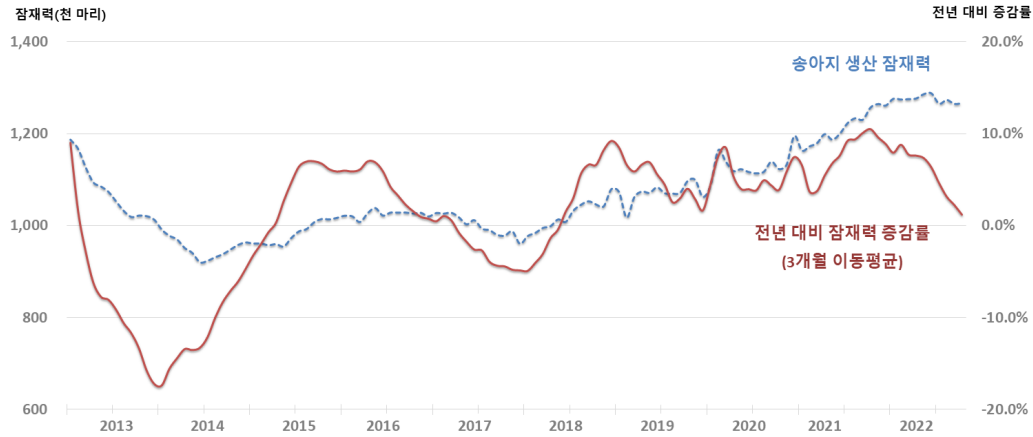


1.2. 소고기 대내외 여건 변화

1.2.1. 국내 여건 변화

-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도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농가의 번식의향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어 가임암소가 160만 마리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 2022년 송아지 생산 마릿수는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한우 정액 판매량은 2020년 대비 0.6%로 소폭 증가하였다. 송아지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번식의향이 2021년에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 한우 정액 판매량 증가로 2022년(10월까지) 송아지 잠재력 지수는 2021년 대비 0.8% 상승하였다.

그림 17-4. 송아지 생산 잠재력 추이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16년 이후 소 산지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임암소와 송아지 생산이 늘어 현재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사육 마릿수는 340만 8천 마리로 역대 최대 마릿수를 기록하였고, 등급 판정 마릿수도 최근 6년 사이 최대 마릿수를 기록하였다.
- 과거 사육과 도축, 도매가격 패턴을 살펴본 결과, 사육 마릿수 증가는 도축 마릿수를 늘게 해 도매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사육 증가국면 10년차였던 2012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325만 마리였으며, 등급 판정 마릿수는 84만 3천 마리였다. 한우고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였고, 비육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이후 사육 마릿수는 감소국면을 맞게 되었다.
- 한편, 2021년의 경우 등급 판정 마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자율적인 암소 감축과 선제적 송아지 생산 및 입식 조절이 필요하다.

[표 17-11] 한우 사육 변화와 도매가격 동향

단위: 천 마리, %, 원/지육kg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가국면				감소국면					
		1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한우 사육	마릿수	3,250	3,077	2,904	2,769	2,810	2,871	2,962	3,078	3,227	3,408
	증감률	3.0	-5.3	-5.6	-4.7	1.5	2.2	3.1	3.9	4.8	5.6
가임 암소	마릿수	1,538	1,465	1,387	1,332	1,346	1,372	1,427	1,484	1,548	1,634
	증감률	0.8	-4.7	-5.3	-4.0	1.2	1.9	4.0	4.0	4.3	5.6
등급판정 마릿수	마릿수	843	960	921	884	737	743	736	765	763	794
	증감률	17.3	13.9	-4.0	-4.1	-16.5	0.7	-0.8	3.9	-0.3	4.1
한우 전체 평균가격		13,121	12,814	14,283	16,284	18,116	16,719	17,772	17,965	19,891	2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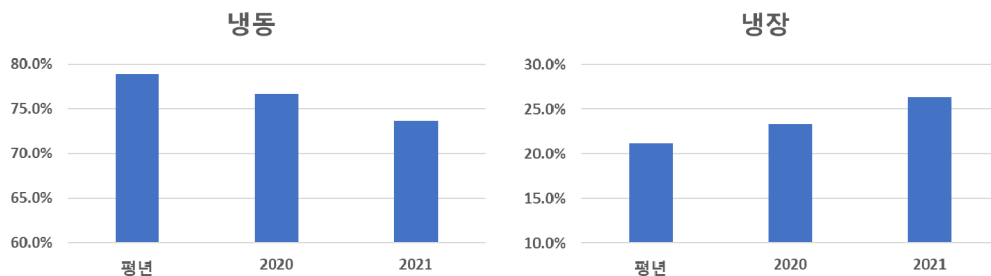
주 1) 이력제 자료 대체 이전 사육 마릿수는 통계청 자료를 이력제 기준으로 변환함.

2)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축산물품질평가원, KREI 농업관측센터

-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 한우가격 강세와 맞물려 소비자의 신선육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입육의 냉장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와 철폐는 수입 소고기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향후 국내 시장에서 국내산과 냉장 수입육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5. 수입 소고기 냉동/냉장 비중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1.2.2. 해외 소고기 수급 전망

- 2022년 세계 소고기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의 소고기 생산량이 늘어 2021년 대비 약 1% 증가한 5,818만 톤으로 전망된다(USDA).
 - 지난 2년간 감소세를 보인 호주의 소고기 생산량은 목초지 환경 개선과 함께 출하 대기 물량 및 도체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대비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미국의 소고기 생산량은 도축과 도체증 감소로 2021년보다 2.7% 감소한 1,238만 톤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은 2021년 대비 5.4% 감소한 148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역대 최대였던 2021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일 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고기 생산량이 회복되는 호주와 함께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2022년 중국의 소고기 소비 증가세는 8년 연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 대비 4.0% 증가한 1,015만 톤으로 예상되고, 소고기 수입은 2021년 대비 10.2% 증가한 325만 톤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져 이전보다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12] 미국, 호주, 중국의 소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 분		미국			호주			중국		
		2022년	2021년	평년	2022년	2021년	평년	2022년	2021년	평년
공급	생산	12,383	12,736	12,343	2,115	1,900	2,194	6,920	6,835	6,610
	수입	1,481	1,522	1,421	-	-	-	3,250	2,950	2,109
	소계	13,864	14,258	13,764	2,115	1,900	2,194	10,170	9,785	8,719
수요	소비	12,390	12,718	12,374	645	580	704	10,149	9,763	8,707
	수출	1,483	1,567	1,382	1,470	1,320	1,490	-	-	-
	소계	13,873	14,285	13,755	2,115	1,900	2,194	10,149	9,763	8,707

자료: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22.1.)

- 2022년 수입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는 관세가 인하되지만, 환율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2021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는 2021년 대비 4.5% 상승한 kg당 1만 1,828원, 호주산은 4.6% 상승한 1만 574원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2012년)와 한·호주 FTA(2014년)에 의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2026년 이후, 호주산은 2028년 이후 완전히 철폐된다.
- 2023년 이후 도매원가는 수입단가가 상승하나, 환율 하락과 관세 인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는 2026년 kg당 1만 1,584원, 2031년 1만 1,222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산은 2026년 10,398원, 2031년에는 9,607원으로 전망된다.

[표 17-13] 수입 소고기 도매가격 전망

구 분		2021년	전망			
			2022년	2023년	2026년	2031년
환율(원/US\$)		1,140	1,169	1,162	1,160	1,147
수입단가 (\$/kg)	미국	8.0	8.4	8.6	9.1	8.9
	호주	6.9	7.2	7.3	7.8	7.6
관세율 (%)	미국	13.3	10.7	8.0	0	0
	호주	18.7	16.0	13.3	5.3	0
도매원가 (원/kg)	미국	11,314	11,828	11,734	11,584	11,222
	호주	10,105	10,574	10,499	10,398	9,607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21년 수입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3) 도매원가는 수입단가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1.3. 소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1.3.1. 소이력정보에 따른 한육우 사육 및 도축 전망

- 소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9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5.5% 증가한 353만 8천 마리였다.
- 2022년 한육우 도축 마릿수는 출하 가능한 암소와 수소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임암소 증가에 따른 송아지 생산 마릿수 증가세가 유지되며 향후 사육 및 도축 마릿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우 암소를 살펴보면, 향후 10개월 내에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임암소(15개월령 이상)는 전년 대비 5.2%, 평년 대비 14.4% 증가한 162만 6천 마리였다.
 - 육성우와 송아지는 각각 전년 대비 4.7%, 8.1%, 평년 대비 14.1%, 25.1% 증가하여 향후 2년간 송아지 생산 마릿수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도축이 가능한 30개월령 이상 암소 마릿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하여 2022년 암소 도축 마릿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수소의 경우, 2022년에 도축 가능한 18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55만 마리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여 2022년 수소 도축 마릿수는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6개월 내에 출하가 가능한 25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21만 3천 마리로 전년 대비 9.0%, 평년 대비 9.2% 증가하였다.
 - 2023년에 도축이 예상되는 7~17개월 육성우는 전년 대비 5.0%, 평년 대비 16.2% 증가하여 수소 도축 마릿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육우의 경우, 2022년에 도축 가능한 12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9만 1천 마리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여 2022년 육우 도축 마릿수도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6개월 내에 출하가 가능한 15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7만 마리로 전년 대비 4.3%, 평년 대비 9.3% 증가하였다.
 - 2023년에 도축이 예상되는 7~11개월 육성우는 전년 대비 3.0%, 평년 대비 8.7% 증가하여 육우 도축 마릿수 또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7-14] 소이력정보를 활용한 한육우 사육 마릿수 현황

단위: 천 마리, %

구 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우 암소	송아지	1~6개월	182	169	146	8.1	25.1
	육성우	7~14개월	349	334	306	4.7	14.1
	가임암소	15개월 이상	1,626	1,546	1,422	5.2	14.4
	소 계		2,158	2,049	1,874	5.3	15.2
한우 수소	송아지	1~6개월	195	180	156	8.3	25.3
	육성우	7~12개월	312	303	277	3.0	12.5
		13~17개월	152	139	122	9.2	24.6
	비육우	18~24개월	337	322	302	4.6	11.7
		25개월 이상	213	196	195	9.0	9.2
	소 계		1,210	1,140	1,052	6.1	15.0
육우	송아지	1~6개월	48	48	44	0.0	9.6
	육성우	7~11개월	31	30	28	3.0	8.7
	비육우	12~14개월	21	20	18	4.7	20.6
		15개월 이상	70	67	64	4.3	9.3
	소계		170	165	154	2.9	10.6

주 1) 한육우 월령별 사육 마릿수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 소 이력제 자료임.

2) 평년은 2016~2020년의 최소, 최대값을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3.2. 한우 사육 및 도축 전망

- 2022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2세 이상 마릿수와 송아지 생산 마릿수 증가로 2021년 대비 2.4%, 평년 대비 13.0% 증가한 348만 9천 마리로 전망된다.
 - 1세 미만 마릿수는 2021년 100만 마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2022년에는 103만 5천 마리로 2021년 대비 3.2%, 평년 대비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세 이상 마릿수는 2021년 대비 3.1% 증가한 150만 마리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한우 출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17-15]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단기)

단위: 천 마리

구분	2022년	2021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마릿수	3,489	3,408	3,089	2.4	13.0
1세 미만	1,035	1,003	910	3.2	13.8
1~2세	953	949	858	0.5	11.2
2세 이상	1,500	1,456	1,324	3.1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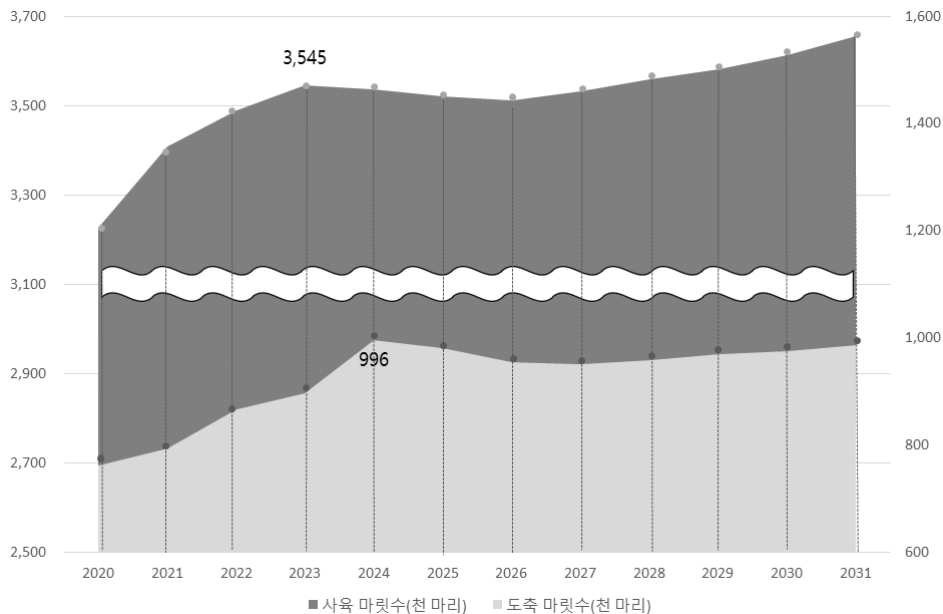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7~2021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사육 마릿수 전망치는 각 년도 12월 1일자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 이후 사육 마릿수는 가임암소 증가에 따른 송아지 생산 증가로 2023년(354만 5천 마리)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 마릿수는 2023년 사육 마릿수 증가 영향으로 2024년(99만 6천 마리)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2024년까지 도축 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국면으로 이어져 2026년까지 사육 마릿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6. 한우 사육 및 도축 마릿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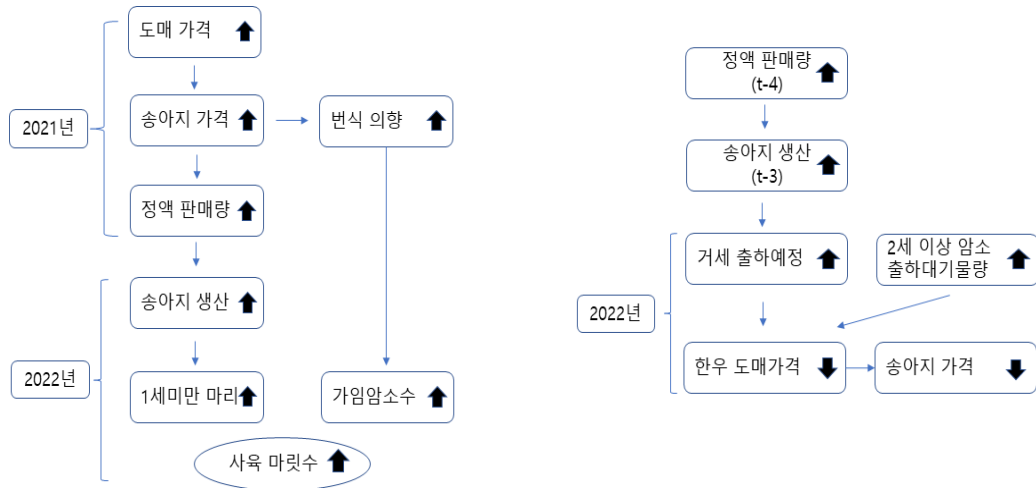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1.3.3. 소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 (단기 전망) 2022년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21년 대비 8.3% 증가한 28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출하에 영향을 미치는 2019~2020년 송아지 생산이 늘어 거세우 출하 가능 마릿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가임암소 증가로 암소 사육 마릿수도 2021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 소 이력제 자료(2021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2022년에 출하 가능한 거세우 마릿수 (18개월 이상)는 2021년 대비 6.3%, 암소 사육 마릿수는 5.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소고기 수입량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수입 단가 상승, 주요 수입국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2021년 대비 4.3% 감소한 43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 호주산 소고기 수입은 목초지 환경 개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비중이 큰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생산량 감소로 2021년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소고기 공급량은 수입량 감소에도 국내 도축 물량 증가 영향으로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한 71만 9천 톤, 1인당 소비가능량은 13.9kg으로 예상된다. 수입량 감소와 국내 생산량 증가로 소고기 자급률은 39.7%로 2021년보다 2.9%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은 2021년 대비 9.4% 하락한 kg당 1만 9,185원으로 전망된다.
 - 1분기 도매가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가정 내 소비 지속으로 2021년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되지만, 출하 가능 마릿수가 점차 많아지는 2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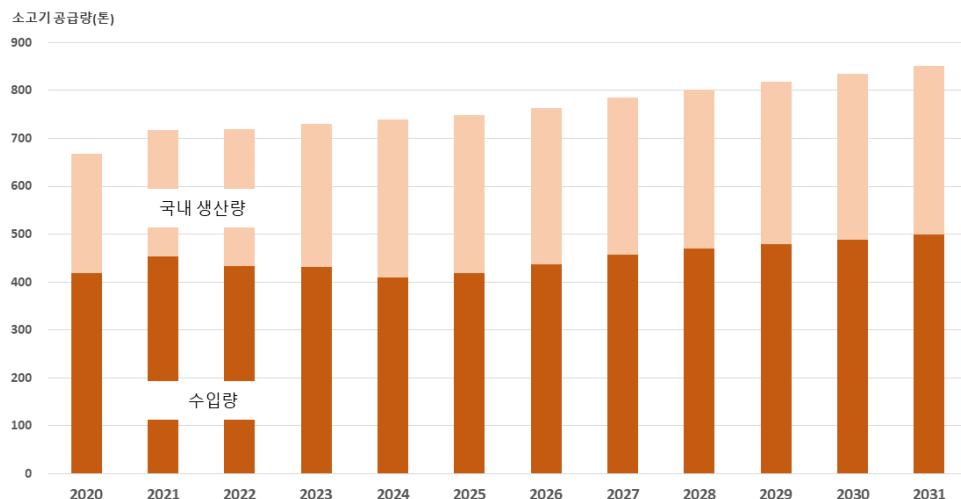
그림 17-7. 2022년 한우 사육 및 도매가격 전망 흐름도



주: t는 기준 연도를 의미함.

- (중장기 전망) 2023년 이후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6년 30만~33만 톤, 2031년에는 31만~3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소고기 수입량은 한우고기 도매가격 하락과 국제가격 상승 영향으로 202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소고기 수입량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6년 41만~44만 톤, 2031년에는 45만~48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에 따라 공급량이 늘어 2024년까지 지속적인 약세가 예상된다. 2023년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 7,500원~1만 8,500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2024~2025년에는 1만 6천 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 도매가격은 1만 6,500원~1만 7,500원, 2031년 1만 9,000원~2만 원대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8. 국내 소고기 공급 중장기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 2023년 이후 1인당 소비가능량은 소고기 공급량이 늘어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된다. 2023년은 13.0~14.1kg, 2026년 13.8~14.9kg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호주산 수입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2031년에는 14.8~16.0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고기 자급률은 국내산 소고기 생산량 증가로 2026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관세 철폐 등에 따른 수입 소고기 증가폭이 국내산 소고기 생산량 증가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표 17-16] 소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정육 기준)

구 분	2021년	전 망			
		2022년	2023년	2026년	2031년
생 산	264	286	270~300	300~330	310~340
수 입	453	433	400~430	410~440	450~480
1인당 소비가능량(kg)	13.8	13.9	13.0~14.1	13.8~14.9	14.8~16.0
자급률(%)	36.8	39.7	40.2~41.0	42.2~42.8	40.7~41.4
한우 도매가격(원/kg)	21,169	19,185	17,500~18,500	16,500~17,500	19,000~20,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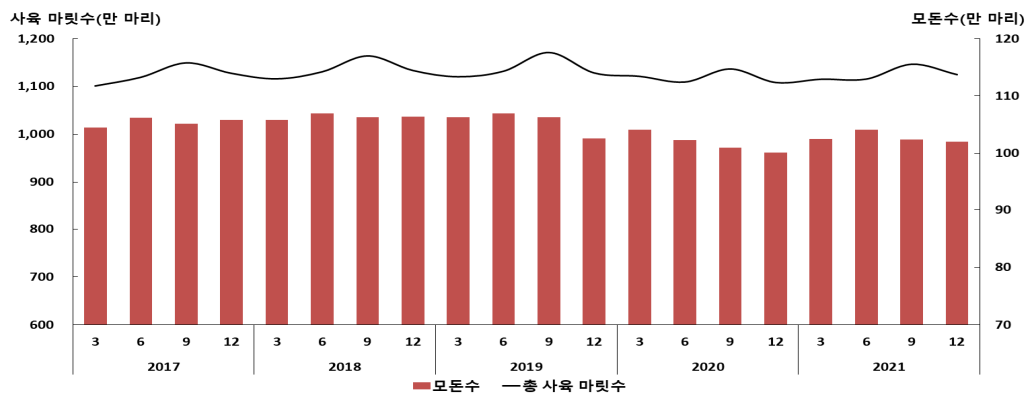
- 2021년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사육과 도축 마릿수 증가에도 가정 내 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 강세가 지속되었다. 가격 강세로 농가들의 입식의향 또한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향후 도축 마릿수는 중장기적으로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해외여행 재개 등 일상이 회복되면 축산물 수요는 현재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축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한우 공급이 늘어나면 중장기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하락이 우려된다.
- 따라서 선제적으로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한우산업은 규모화와 전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능동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 농가에서는 신규 입식을 자제하고, 한우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암소를 선제적으로 도태해 장기적으로 한우 산업의 변동성을 줄이고 이익을 도모하는 경영이 필요하다.

2.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2.1.1. 돼지 사육 동향

- 2021년 12월 1일 기준 사육 마릿수는 돼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의향 증가로 전년 (1,108만 마리) 동기 대비 2.1% 늘어난 1,131만 마리로 나타났다(통계청).
- 2021년 12월 1일 기준 모든 사육 마릿수는 가격 상승으로 모든 사육 의향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1.9% 증가한 102만 마리였다.
 -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으로 인한 입식 제한과 모든 감축으로 사육 마릿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 6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17-9. 돼지 사육 마릿수 동향



주: 2021년 12월 1일 기준 사육 마릿수는 11월 말 이력제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2.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 2021년 돼지 등급 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1,837만 마리였다.
- 2021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등급 판정 마릿수가 증가하였으나 돼지 1마리당 평균 도체중 감소로 전년 대비 0.2% 감소한 98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 1~12월 돼지 1마리 출하체중(농림축산검역본부): 116.2kg(2020년) → 115.5(2021년)
- 2021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33만 3천 톤이었다.
 -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20년 9월 독일 ASF 발생 후 독일산 수입 금지 조치, 국제 물류 문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였으며, 하반기는 수입국 다변화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하였다.
 - 삼겹살은 국내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한 16만 6천 톤이 수입되었다.
 - 가공품 원료로 주로 이용되는 냉동 앞다리살 등은 9.6% 감소한 15만 8천 톤이 수입되었다.
 -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미국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스페인 20.1%, 네덜란드 8.9%, 오스트리아 7.2%, 칠레 7.0%, 캐나다 6.6%, 덴마크 5.0% 순이다.²⁾
- 2021년 돼지고기 재고량은 전년보다 30.4% 감소한 10만 톤으로 추정된다.
- 2021년 11월 돼지고기 재고량³⁾은 전년보다 37.6% 감소한 9만 톤이었다.
 -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2만 톤으로 전년보다 72.0%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고, 국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육가공업체의 국내산 사용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 수입 돼지고기 재고량은 수입육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0% 감소한 7만 톤으로 나타났다.

2) 독일산 돼지고기는 2020년 9월 독일 내 ASF 발생으로 국내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3)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원사 자료

- 2021년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생산량, 이월 재고량 감소로 전년보다 1.3% 감소한 146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21년 1인당 소비가능량은 2020년 27.1kg보다 1.7% 증가한 27.6kg으로 추정된다.
 - 돼지고기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3%p 하락한 72.8%로 추정된다.

[표 17-17]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	이월 재고	144	184	116	-21.8	23.9
	생산	989	991	933	-0.2	6.0
	수입	333	311	425	7.2	-21.7
	소계	1,466	1,486	1,474	-1.3	-0.6
수요	소비	1,358	1,337	1,327	1.5	2.3
	수출	8	5	2	66.7	275.0
	재고	100	144	145	-30.4	31
	소계	1,466	1,486	1,474	-1.3	-0.6
1인당 소비 가능량(kg)		27.6	27.1	26.1	1.7	5.7
자급률(%)		72.8	74.1	70.3	-1.3	2.5

주 1)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자급률 = 돼지고기 생산량 ÷ 돼지고기 소비량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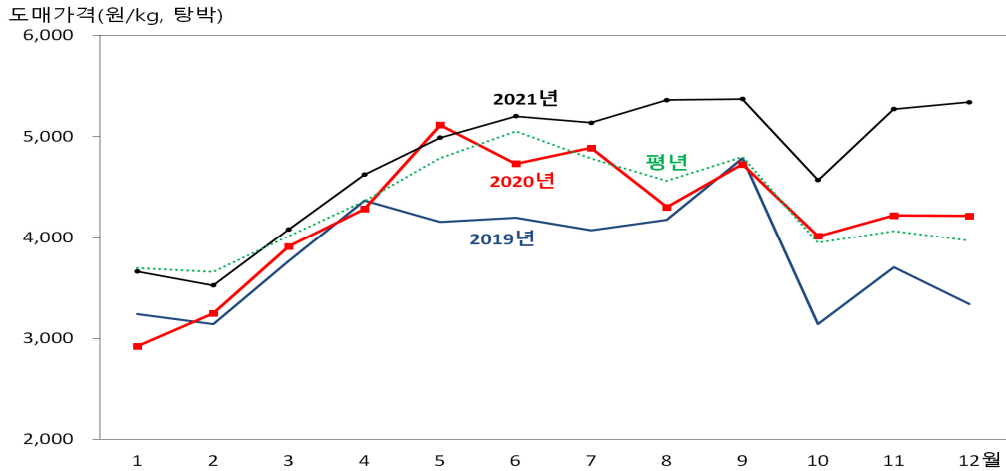
3)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KREI 농업관측센터

2.1.3. 돼지고기 가격 동향

- 2021년 돼지 도매가격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늘고, 수입오퍼 가격이 상승하면서 육가공업체의 국내산 사용 비중이 증가하여 전년(4,185원/kg, 탕박, 제주도 제외)보다 12.8% 상승한 kg당 4,722원이었다.
 - 한편 제주도 가격은 6,565원으로 전년(5,236원)보다 25.4% 상승하였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가격은 5,220원으로 전년(4,471원)보다 16.8% 상승하였다.

그림 17-10. 돼지 도매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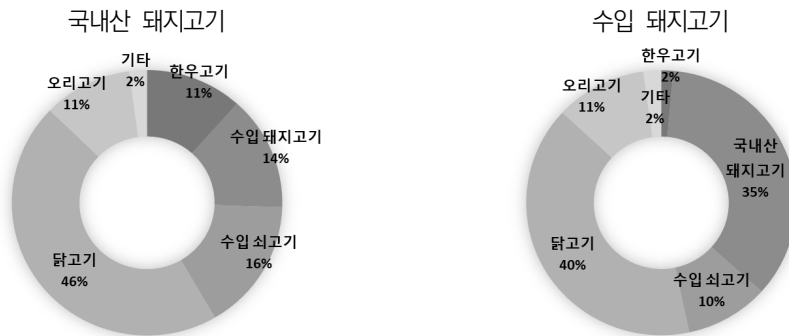
- 2021년 1~11월 부위별 공장출고 가격을 살펴보면, 삼겹살은 kg당 17,257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6% 상승하였고, 목심은 13,581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2% 상승하였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저지방 부위인 뒷다리살, 앞다리살도 각각 전년 동기간 대비 2.1%, 23.5% 상승하였다.
- 2021년 국산 냉장 삼겹살(소매가격)은 100g당 2,429원으로 전년보다 14.5% 상승하였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입 삼겹살(냉동)은 1,309원으로 전년보다 21.4% 상승하였다.

2.1.4. 돼지고기 소비행태 분석

-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가정 내 육류 소비 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 내 육류 소비 선호 비중은 돼지고기 65.7%, 쇠고기 18.4%, 닭고기 14.1%, 오리고기 1.8%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돼지고기 가정 내 소비 비중은 전년(66.8%) 대비 4.7%p 증가한 71.5%, 외식 소비 비중은 전년(33.2%) 대비 4.7%p 줄어든 28.5%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가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61.8%)이며, 그 다음 목심(23.3%), 갈비, 앞다리살/뒷다리살 순으로 응답하였다.
- 돼지고기 선택 시,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가격이 17.3%로 가장 높고, 품질(15.7%), 부위(15.4%), 냉장·냉동 여부, 원산지 순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대체할 육류로는 닭고기 45.6%, 수입 쇠고기 16.4%, 수입 돼지고기 13.9%, 한우고기 11.6%, 오리고기 10.6% 순으로 조사되었다.
- 수입 돼지고기 소비를 대체할 육류로는 닭고기 40.2%, 국내산 돼지고기 35.2% 오리고기 11.0%, 수입 쇠고기 10.0%, 기타 2.1%, 한우고기 1.4%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11. 돼지고기 대체 육류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21년(1~11월) 가정 내 돼지고기 평균 구매량은 2.09kg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6.8% 증가하였다(Kantar Worldpanel Division).
 - 국내산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98kg, 수입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64kg였다.
- 1회당 구매량은 1.07kg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나 구매빈도는 1.96회로 전년보다 0.6%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이전('18~'19년) 1~11월 가정 내 평균 구매량은 1.85kg였으나 코로나19 이후('20~'21년)는 9.4% 증가한 2.02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소비는 감소하고,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7-18] 가정 내 돼지고기 평균 구매량(1~11월)

구분	2021년 (A)	2020년 (B)	A/B (%)	코로나19 이후(C)	코로나19 이전(D)	C/D (%)
1회당 구매량(kg)	1.07	1.00	7.4	1.03	0.99	3.9
구매빈도(회)	1.96	1.97	-0.6	1.96	1.86	5.3
가구당 평균 구매량(kg)	2.09	1.96	6.8	2.02	1.85	9.4

주 1) 자료는 각 연도의 1~11월 평균값을 이용하여 작성함.

2) 코로나19 발생 이전은 2018~2019년, 코로나 이후는 2020~2021년의 평균값을 작성함.

자료: Kantar Worldpanel Division

2.2. 돼지고기 대내외 여건 변화

2.2.1. 국내 여건 변화

- 국내 ASF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14건, 2020년과 2021년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각각 2건, 5건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21건이 발생하였다.
 - 2019년 돼지 살처분 마릿수는 약 38만 마리(수매 6만 마리), 2020년 약 4천 마리, 2021년 약 7천 5백 마리였다.
- 지난 3년간 야생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총 1,875건으로 지난 2019년 55건, 2020년 856건에서 2021년 964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17-19] 돼지 사육농장 ASF 발생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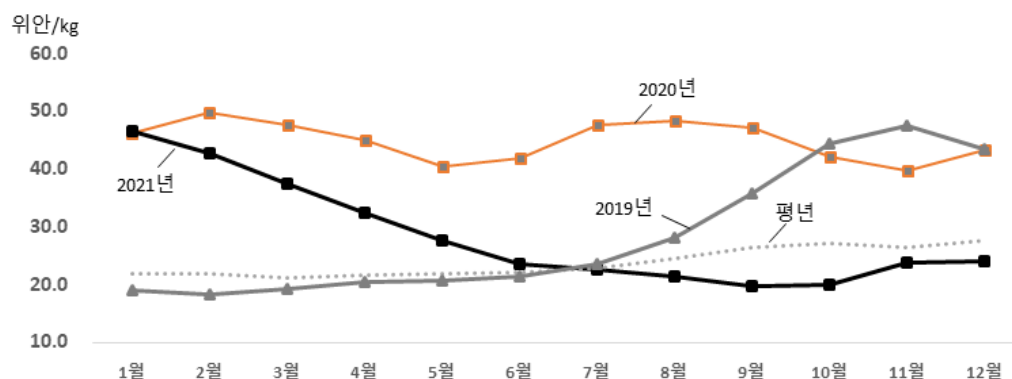
구분	경기				강원					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2021년	-	-	-	-	-	1	1	2	1	5
2020년	-	-	-	-	2	-	-	-	-	2
2019년	5	2	2	5	-	-	-	-	-	14
계	5	2	2	5	2	1	1	2	1	2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2.2. 해외 여건 변화

- 2021년 중국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8년에 발생한 ASF 영향이 회복되면서 2020년보다 증가하였다.
 - 2021년 9월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는 4억 3,764만 마리로 전년 동월보다 17.3% 증가하였으며, ASF 발생 전인 2018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 2021년 중국 수입량의 경우, 상반기는 2018년 중국 ASF 영향으로 국내 공급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보다 8.5% 증가한 230만 톤이었으나 7~11월 수입량은 ASF 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31.9% 감소한 124만 톤이었다.
- 2021년 중국 돼지 도매가격은 ASF 영향 회복으로 전년 대비 36.5% 하락한 28.5위안/kg 이었다.
 - 2021년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1.8% 하락한 kg당 42.3위안이었으나 ASF 회복에 따른 중국 내 공급량 증가로 2~4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45.5% 하락한 23.9위안이었다.

그림 17-12. 중국 돼지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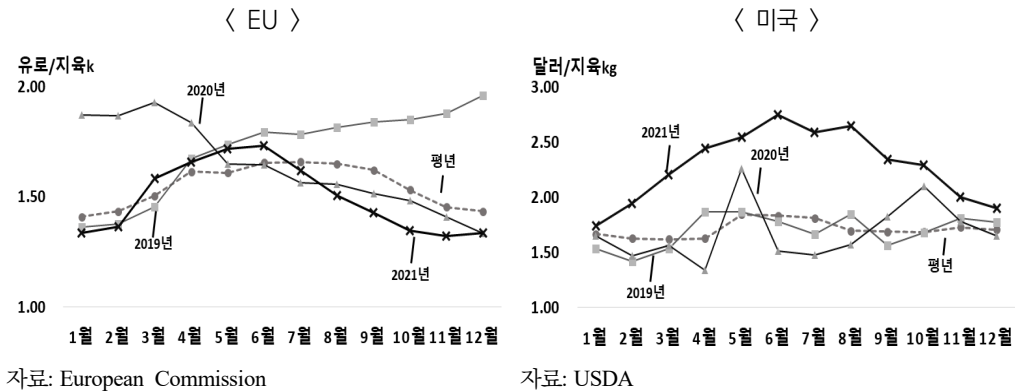


자료: 중국 농업농촌부

- 2021년 EU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5유로로 전년보다 8.7%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수요가 ASF 회복과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약 2,368만 톤, 수출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505만 톤이었다.

- 2021년 미국 평균 도매가격은 사육 마릿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5.6% 상승한 kg당 2.28달러였다.
-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약 1,256만 8천 톤,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321만 5천 톤이었다.

그림 17-13. EU와 미국 돼지 도매가격 동향



2.2.3. 해외 돼지고기 수급 전망⁴⁾

- 2022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억 988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중국) 202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4,950만 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5,360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입량은 자국 내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420만 톤으로 전망된다.
- (EU) 2022년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0.1%) 감소한 2,366만 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878만 톤으로 전망된다.
- (미국) 2022년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1,248만 7천 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990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4) 미농무부(USDA)에서 작성한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22.1.)을 참조·인용하여 작성함.

[표 17-20]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중국			미국			EU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FOOD	생산	36,340	48,850	49,500	12,845	12,568	12,487	23,219	23,680	23,660
	수입	5,281	4,400	4,200	410	540	590	160	100	100
	소계	41,621	53,250	53,700	13,255	13,108	13,077	23,379	23,780	23,760
SOCIETY	소비	41,521	53,150	53,600	10,034	9,896	9,902	18,201	18,730	18,780
	수출	100	100	100	3,302	3,215	3,175	5,178	5,050	4,980
	소계	41,621	53,250	53,700	13,336	13,111	13,077	23,379	23,780	23,760

주: 지육 기준임.

자료: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22.1.)

- 2022년 수입 돼지고기 도매원가는 환율이 상승하나 수입단가 하락 폭이 더 커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와 미국산 돼지고기 도매원가는 각각 10.1% 하락한 5,253원/kg, 3,642원/kg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이후, 수입단가 상승하나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입 돼지고기 도매원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 도매원가는 2026년 3,534원/kg, 2031년 3,484원/kg까지 하락하며, EU산은 2026년 5,097원/kg, 2031년 5,025원/kg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21] 수입 돼지고기 도매원가 전망

구분		2021년	전망			
			2022년	2023년	2026년	2031년
환율(원/US\$)		1,140	1,169	1,162	1,160	1,147
수입단가 (\$/kg)	미국	3.23	2.83	2.73	2.77	2.76
	EU	4.66	4.09	3.94	3.99	3.98
	기타	3.14	2.76	2.66	2.70	2.69
관세율 (%)	미국	-	-	-	-	-
	EU	-	-	-	-	-
	기타	6.2	6.2	6.2	6.2	6.2
도매원가 (원/kg)	미국	4,051	3,642	3,492	3,534	3,484
	EU	5,842	5,253	5,037	5,097	5,025
	기타	4,167	3,747	3,593	3,636	3,584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21년 수입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3) 도매원가는 국가별 수입단가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도매원가=국가별 수입단가×(1+10%(유통제반비용)+관세율(%))×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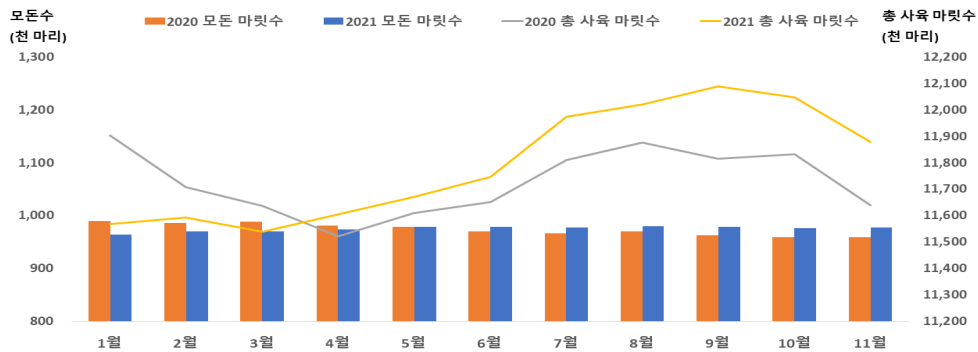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2.3.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2.3.1. 돼지 사육 구조 분석

- 돼지 이력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말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88만 마리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1%, 1.6% 증가하였다. 2020년 모돈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의향 증가로 2021년 5월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모돈 사육 마릿수가 6월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 2021년 11월 기준 모돈 사육 마릿수는 98만 마리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9%, 0.6% 증가하였다.

그림 17-14. 돼지 사육 마릿수 동향



주: 돼지 사육 마릿수는 매일 말일 기준의 돼지 이력제 신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5월까지 출하 가능한 2021년 11월 자돈·육성돈·비육돈 사육 마릿수는 1,078만 마리로 전년보다 2.1%, 평년보다 1.7% 많은 상황이다.
- 2021년 11월 비육돈을 제외한 자돈과 육성돈 사육 마릿수가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모돈의 번식 성적 및 이유 후 육성률 향상 등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 대한한돈협회 한돈팜스 전산성적(1~10월)
 - 비육돈 출하일령: 201.8일(평년) → 194.9일(2020년) → 196.5일(2021년)
 - PSY(모돈당 이유두수): 21.1(평년) → 21.6(2020년) → 21.7 (2021년)
 - 이유 후 육성률: 84.5%(평년) → 85.6%(2020년) → 85.0%(2021년)

[표 17-22] 2021년 11월 돼지 사육 동향

단위: 만 마리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마릿수	1,188.0	1,163.9	1,168.9	2.1	1.6
모돈	97.7	95.9	97.1	1.9	0.6
자돈(0~2개월)	389.2	375.1	370.3	3.8	5.1
육성돈(2~4개월)	343.4	334.1	332.7	2.8	3.2
비육돈(4~6개월)	345.1	346.1	356.5	-0.3	-3.2

주 1) 단계별 돼지 사육 마릿수는 매년 11월 말일 기준 돼지 이력제 신고 자료임.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3.2. 돼지고기 수급 전망

- 2022년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21년(1,127만 마리)보다 0.6% 증가한 1,133만 마리로 전망된다.
 - 3월 사육 마릿수는 2021년도 가격 상승 영향에 따른 모돈 사육 의향 상승으로 전년 동월 보다 1.5% 증가한 1,131만 마리, 6월은 1.0% 증가한 1,126만 마리로 전망된다.
 - 9월 사육 마릿수는 모돈 마릿수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동월과 비슷한 1,148만 마리, 12월은 0.3% 감소한 1,127만 마리로 전망된다.

[표 17-23] 2022년 돼지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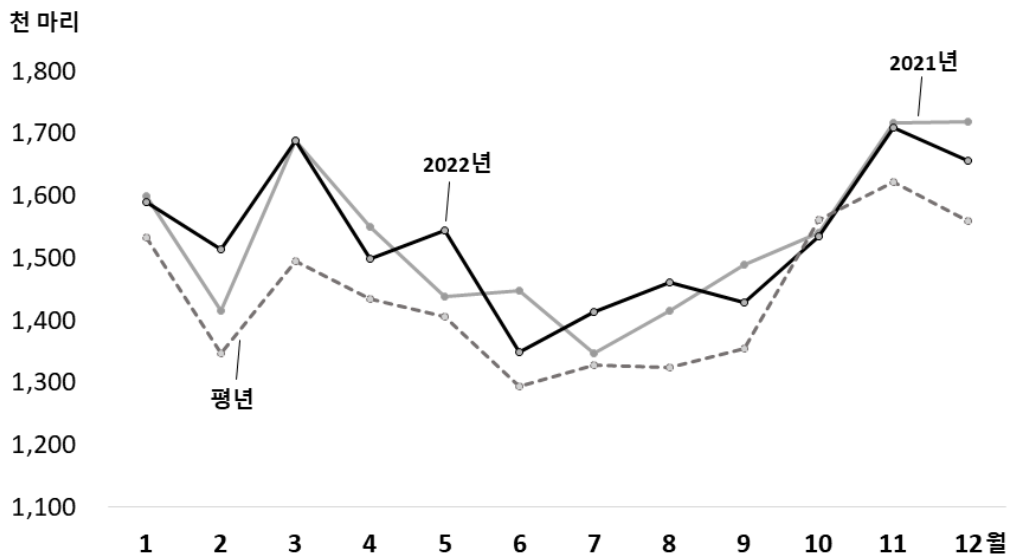
구분	모돈수				전체 사육 마릿수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2022년	103.4	104.7	102.6	102.0	1,131.2	1,125.6	1,148.0	1,127.0
2021년	102.5	104.1	102.4	102.0	1,114.7	1,115.0	1,146.5	1,130.8
증감률(%)	0.9	0.6	0.2	0.0	1.5	1.0	0.1	-0.3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2021년 3~9월은 통계청, 12월은 11월 말 기준 돼지 이력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2022년 돼지 등급 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1,839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1년 11월 기준 사육구조 상 2022년 1월 등급 판정 마릿수는 비육돈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0.6% 감소하나 이유 후 육성률, 출하일령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평년 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다.
- 2~5월 출하 가능 물량은 2021년 11월 육성돈·자돈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2.5%, 평년 대비 9.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9월 등급 판정 마릿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고, 평년 대비 6.6% 많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10월 이후의 도축 마릿수는 모돈 증가 추세 둔화, 작업일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고, 평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등급 판정 마릿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0.2% 증가한 99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17-15. 2022년 등급 판정 마릿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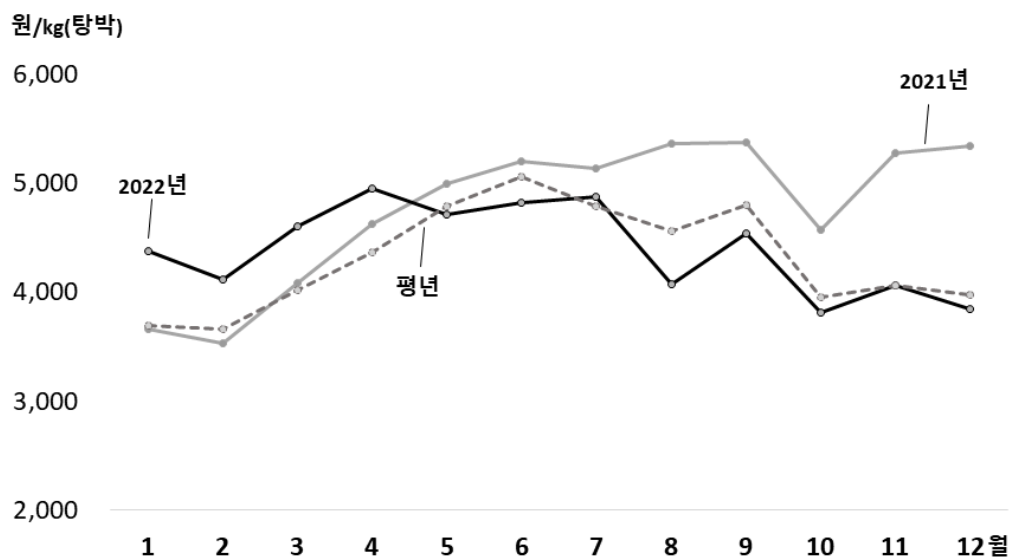
자료 : KREI 농업관측센터 전망치(2020년~2021년, 평년은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입국 다변화,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한 37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연말재고량은 국내 총 공급량이 증가하여 전년(10만 톤) 대비 0.8% 증가한 10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2.3.3. 돼지고기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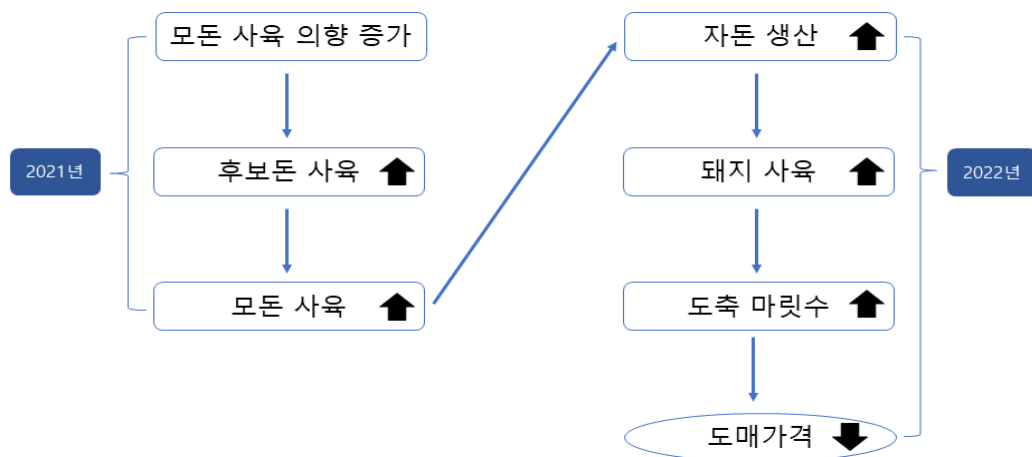
- 2022년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 판정 마릿수와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량 증가로 2021년(4,722원)보다 하락한 4,300~4,500원/kg으로 전망된다.

그림 17-16. 2022년 돼지 도매가격 전망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전망치(2020년~2021년, 평년은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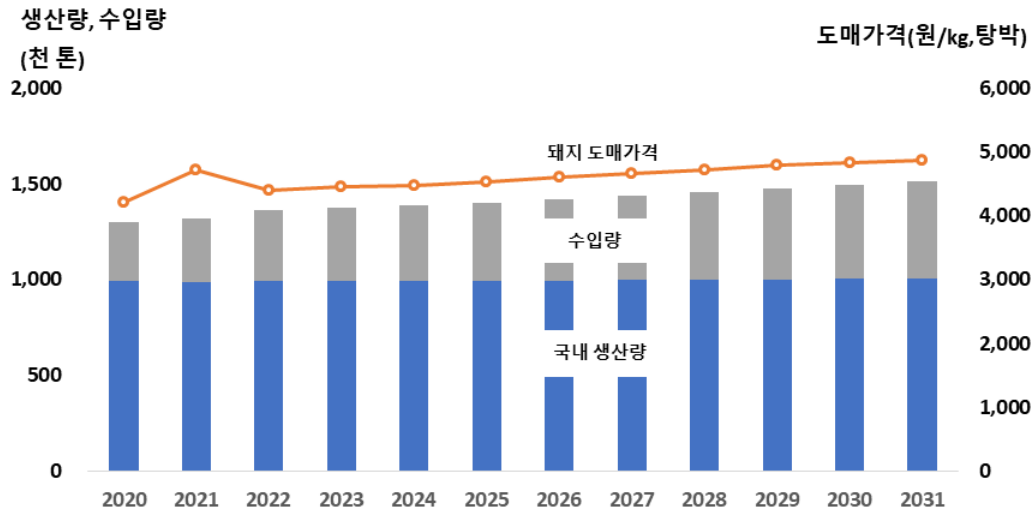
그림 17-17. 2022년 돼지 수급 및 가격 전망 흐름도



2.3.4. 중장기 전망

- 2023년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22년 모돈 증가 영향으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이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돼지 등급 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22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사육 마릿수 증가와 같이 등급 판정 마릿수가 증가하고, 돼지고기 생산량도 동일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돼지고기 수입량은 환율 하락과 국내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31년 수입량은 51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돼지고기 자급률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인 72.8%로 예상되고, 이후 수입량 증가로 2026년 70.4%, 2031년 66.7%로 전망된다.
- 2022년 도매가격은 등급 판정 마릿수 증가로 2021년보다 하락하며,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4,500~4,700원, 2031년 4,700~4,900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17-18. 돼지 수급 및 도매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표 17-24]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2021년	전망		
			2022년	2026년	2031년
공급	이월 재고	144	100	102	104
	생산	989	991	996	1,006
	수입	333	376	423	507
	소계	1,466	1,467	1,521	1,617
수요	소비	1,358	1,361	1,414	1,508
	수출	8	5	5	5
	재고	100	101	102	104
	소계	1,466	1,467	1,521	1,617
1인당 소비가능량(kg)		27.6	27.7	28.9	31.0
자급률(%)		72.8	72.8	70.4	66.7
도매가격(원/kg)		4,722	4,300~4,500	4,500~4,700	4,700~4,9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시사점

- 코로나 시대 한돈 산업 또한 가정 내 소비 증가로 돼지 값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돼지 가격 강세에 따라 모돈수 증가로 2022년 돼지 사육과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전망된다.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ASF, 수입량 증감 등 국내외 수급변동 요인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생산비 상승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입식조절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03

젖소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젖소 사육 및 원유 수급 동향

3.1.1. 젖소 사육 동향

- 2021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40만 마리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0%, 1.9%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시유 소비 감소로 분유 재고량이 급증하자 집유 주체별 기준 원유량 및 초과원유가격을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 1~2세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7만 6천 마리였으나 1세 미만과 2세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각각 3.9%, 2.6% 감소하였다. 경산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23만 2천 마리였으며, 착유우 사육 마릿수는 저능력우 도축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8% 감소한 19만 7천 마리였다.

[표 17-25] 젖소 사육 마릿수 변화

단위: 마리,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마릿수	401,452	409,790	409,084	-2.0	-1.9
1세 미만	78,473	81,692	77,925	-3.9	0.7
1~2세	76,088	74,570	73,329	2.0	3.8
2세 이상	246,891	253,528	257,830	-2.6	-4.2
경산우	231,859	238,619	241,347	-2.8	-3.9
착유우	196,616	202,349	204,662	-2.8	-3.9

주 1) 사육 마릿수는 12월 1일 기준 자료임.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3)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2021년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65.3마리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낙농의 규모화 및 전업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2016년(61.3마리)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 집유주체별로 기준 원유량 및 초과원유가격 조정으로 사육 의향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17-26] 농장당 사육 마릿수

단위: 마리,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사육 마릿수	65.3	67.1	64.5	-2.7	1.3

주 1) 사육 마릿수는 12월 1일 기준 자료임.

2)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21년 1분기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은 평년보다는 1.8% 증가하였으나,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마리당 산유량이 크게 증가하였던 전년보다는 0.6% 감소한 28.3kg이었다.
- 2분기와 3분기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은 저능력우 도축 증가와 기상 호조로 평년 대비 3~4%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통상적으로 4분기 젖소 생산성은 3분기 보다 좋으나, 2021년에는 겨울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조사료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젖소의 마리당 산유량이 3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조사료 공급처인 미국의 생산량 감소와 물류 차질로 수입 조사료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국내산 볶짚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다.

[표 17-27]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

단위: kg/일, %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분기	28.3	28.5	27.8	-0.6	1.8
2분기	29.5	29.3	28.3	0.7	4.1
3분기	27.4	27.0	26.5	1.2	3.4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3.1.2. 원유 수급 동향

- 2021년 원유 공급량(원유 환산)은 국내 생산이 감소하나, 수입과 재고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0.7% 증가한 464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 이월 재고량(원유 환산)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8.7% 증가한 14만 1천 톤이었다.
- 2021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03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분기 이후 마리당 산유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착유우 마릿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21년 국내 소비량은 학교 급식 소비 증가와 유업체들이 적극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 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한 440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 1인당 소비가능량은 86.4kg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6%, 7.2% 증가하였다.

[표 17-28] 원유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kg,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	이월 재고	141	89	156	58.7	-9.3
	국내 생산	2,035	2,089	2,059	-2.6	-1.2
	수입	2,467	2,434	2,084	1.4	18.3
	공급계	4,643	4,611	4,299	0.7	8.0
수요	국내 소비	4,407	4,345	4,078	1.4	8.1
	수출	129	125	112	3.1	15.3
	재고	107	141	109	-24.6	-2.7
	수요계	4,643	4,611	4,299	0.7	8.0
1인당 소비가능량		86.4	85.0	80.6	1.6	7.2

주 1)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평년은 2016~2020년 중 생산량 기준 최대, 최소를 제외한 해의 평균임.

자료: 낙농진흥회, KREI 농업관측센터

- 2021년 수입량(원유 환산)은 관세 인하 및 무관세 할당량 증가, 소비자 선호 다양화 등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246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 분유(탈지, 전지)의 수입량은 국내 재고 증가로 전·평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밀크와 크림, 버터, 치즈 발효유의 수입량은 전·평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17-29] 유제품 수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밀크와 크림	57,868	123,928	42,636	98,515	31,812	84,245	35.7	25.8	81.9	47.1
탈지분유	14,668	42,324	17,469	49,118	22,521	50,532	-16.0	-13.8	-34.9	-16.2
전지분유	4,335	17,917	5,515	21,060	5,038	18,506	-21.4	-14.9	-13.9	-3.2
연유	49	135	53	132	47	136	-6.6	2.7	4.7	-0.3
유당	22,844	32,259	22,413	31,267	23,080	28,051	1.9	3.2	-1.0	15.0
버터밀크	16	133	4	36	47	210	280.2	268.5	-65.5	-36.4
버터	23,139	140,361	15,291	88,924	11,487	69,607	51.3	57.8	101.4	101.6
유장	81,579	190,274	79,191	169,924	74,554	132,952	3.0	12.0	9.4	43.1
치즈	155,261	678,523	148,002	629,224	126,735	541,570	4.9	7.8	22.5	25.3
발효유	2,199	12,955	1,021	5,533	535	2,911	115.4	134.2	311.1	345.1
조제분유	4,744	96,971	4,656	83,174	4,210	76,895	1.9	16.6	12.7	26.1
우유조제품	607	7,372	601	6,398	516	5,402	1.1	15.2	17.6	36.5

주 1) 밀크와 크림은 대부분 멸균유와 크림으로 추정됨.

2) 2021년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3) 평년은 2016~2020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낙농진흥회, KREI 농업관측센터

- 최근 멸균유의 수입량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균유 수입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6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 보관이 용이한 멸균유는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내산 우유 가격 인상으로 수입 멸균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주요 멸균유 수입국은 폴란드로, 전체 수입량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13.2%), 독일(13.0%), 호주(5.8%) 순이다.

그림 17-19. 멸균유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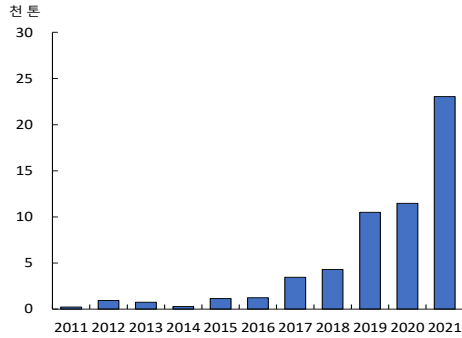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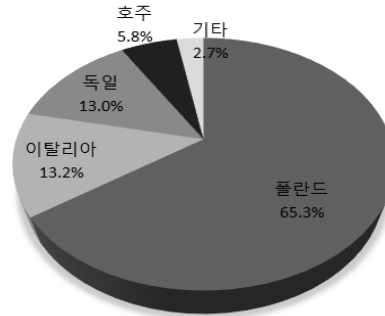


그림 17-20. 국가별 멸균유 수입량 비중(2021년)



- 주 1) 멸균유 수입량은 HS Code 0401.10.0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0401.20.0000의 합계임.
2)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센터

- 2021년 재고량(원유 환산)은 국내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24.6% 감소한 10만 7천 톤(분유 기준 8,400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림 17-21. 월별 분유 재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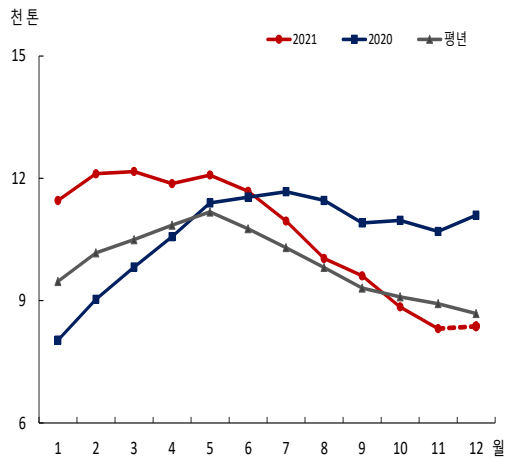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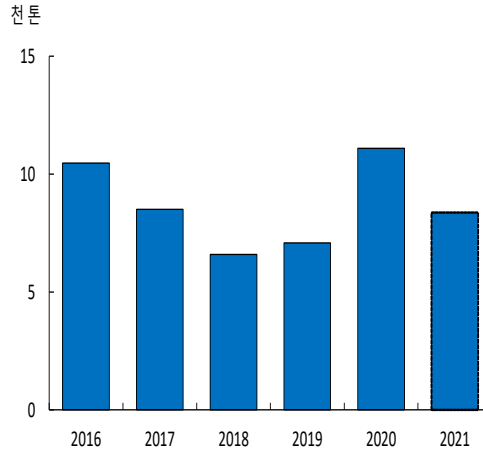


그림 17-22. 연도별 12월 분유 재고량 변화



- 주: 2021년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낙농진흥회

3.1.3. 유제품 소비 변화

- 2021년 소비자의 우유 구매처 비중은 대형마트가 48.7%로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감소하였던 전년 대비 2.3%p 상승하였다. 배달 구매 비중은 전년보다 1.1%p 감소한 4.8%였으나, 온라인 구매 비중은 7.9%로 전년보다 0.9%p 높게 나타났다.
- 유제품의 온라인 구매는 코로나19의 영향 이후 새로운 소비행태로 자리잡았으며, 비중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23. 우유 구매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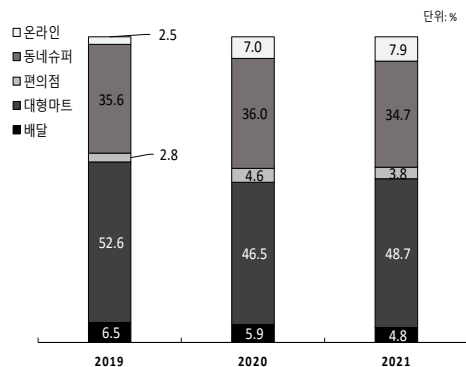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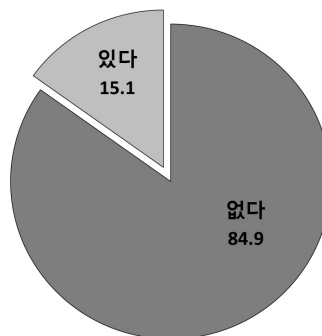


그림 17-24. 수입 멸균유 구매 경험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수입 멸균유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 소비자의 15.1%로 나타났으며, 84.9%는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구매 이유로는 ‘보관이 용이해서’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이 저렴해서 (27.0%)’, ‘궁금해서(12.3%)’ 순으로 나타났다.
- 수입 멸균유 맛이 국산보다 좋아서 구매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6%, 국산보다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4.9%로 나타나 맛, 안전성 등 품질에서 효용을 느끼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의 10.5%로 조사되었다.

- 멸균유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산지(24.1%)’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20.0%, ‘가격’ 18.6%, ‘신선도(제조일자, 유통기한)’ 11.4% 순으로 나타났다.
- 선호하는 멸균유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67.1%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 16.9%, ‘폴란드’ 4.8%, ‘독일’ 4.8%, ‘미국’ 3.9%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25. 수입 멸균유 구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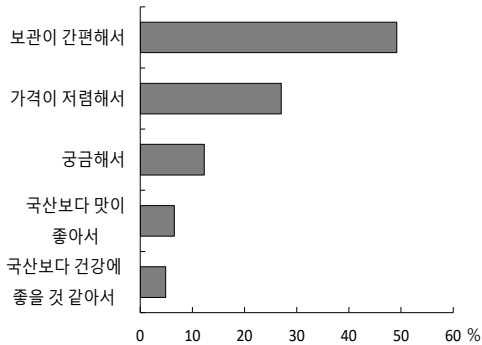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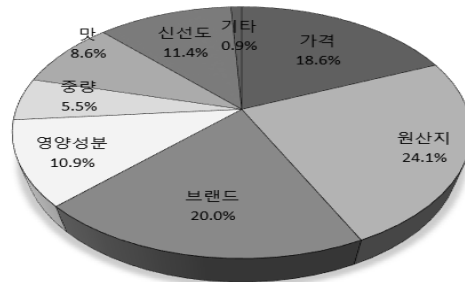


그림 17-26. 수입 멸균유 구매시 고려 사항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21년 국내산 원유의 음용유용(백색시유와 가공시유) 사용량은 학교 급식 중단으로 시유 소비량이 감소하였던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나 평년 대비 2.6% 감소한 152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2021년 가공용 원유 사용량은 2020년 생산된 분유 재고 증가로 전년 대비 9.8%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3.3% 증가하였다.

[표 17-30] 국내산 원유 사용 실적

단위: 천 톤,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음용유용	1,524(74.9)	1,523(72.9)	1,565(76.0)	0.1	-2.6
가공용	510(25.1)	566(27.1)	494(24.0)	-9.8	3.3
합계	2,035(100.0)	2,089(100.0)	2,059(100.0)	-2.6	-1.2

주 1) 2021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음용유용은 백색시유와 가공시유의 합계임.

3) ()는 비중임.

자료: 낙농진흥회

- 2021년 유제품 소비량은 대체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치즈와 가공치즈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3.5%, 0.5% 증가하였으며, 크림과 발효유 소비량도 전년 대비 각각 9.6%,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버터는 소비자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수입 버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버터 소비량은 전년 대비 45.2% 증가한 2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반면, 조제분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1만 5천 톤이며,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는 전년 대비 각각 19.7%, 5.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7-31] 유제품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21년(p)	2020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자연치즈	139	135	114	3.5	22.6
가공치즈	55	54	46	0.5	17.4
버터	26	18	14	45.2	87.1
조제분유	15	17	21	-10.7	-27.9
전지분유	6	7	7	-19.7	-14.9
탈지분유	25	26	34	-5.2	-26.4
크림	65	60	52	9.6	25.6
연유	14	12	11	16.0	19.2
발효유	577	570	563	1.2	2.5

주 1) 유제품 소비량은 국내 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임.

2) 2021년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낙농진흥회

3.2. 원유 및 유제품 대내외 여건 변화

3.2.1. 국내 여건 변화

- 2020년 우유 1리터당 생산비는 전년 대비 2.4% 상승한 809원이었다. 이는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약 68%)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전년 대비 3.7%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표 17-32] 우유 1리터당 생산비 변화

단위: 원, %

구분	2020년	2019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생산비	809	791	769	2.4	2.8
경영비	687	667	649	2.9	2.9
용역비(자본, 토지)	14	14	15	3.5	-7.4
자가노동비	108	110	105	-1.3	4.1

자료: 통계청

- 생산비 상승을 고려하여 원유 기본가격은 기존 가격(926원)보다 21원(2.3%) 인상된 리터당 947원으로 확정되었다(2020. 7.). 다만, 새로운 원유 기본 가격은 2020년 원유 생산량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원유 수급불균형을 고려하여 2021년 8월부터 적용되었다.

[표 17-33] 원유 기본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ℓ, %

기간	기본가격	인상율
2015.08.~2016.07.	940	-
2016.08.~2018.07.	922	-1.9
2018.08.~2021.07.	926	0.4
2021.08.~	947	2.3

자료: 낙농진흥회

3.2.2. 해외 수급 동향

- 2021년 세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5억 4,408만 톤으로 추정된다. 브라질, 호주, 한국, 필리핀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0.5~5.9% 감소하였으나, 그 외 국가들은 전년보다 0.2~4.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USDA, 2022. 1.).
 - 원유 생산량은 EU가 1억 4,570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국가로는 미국이 1억 260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

[표 17-34] 국가별 유제품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	원유			치즈			버터			분유		
	2021년	2020년	증감률	2021년	2020년	증감률	2021년	2020년	증감률	2021년	2020년	증감률
EU	145,700	145,415	0.2	10,350	10,232	1.2	2,134	2,153	-0.9	2,180	2,298	-5.1
미국	102,604	101,252	1.3	6,206	6,012	3.2	948	973	-2.6	1,242	1,281	-3.0
인도	96,000	93,800	2.3	0	0	-	6,300	6,100	3.3	680	660	3.0
중국	34,600	34,400	0.6	16	14	14.3	109	108	0.9	972	1,012	-4.0
러시아	32,020	32,010	0.0	1,075	1,059	1.5	270	282	-4.3	147	150	-2.0
브라질	24,845	24,965	-0.5	790	790	0.0	82	82	0.0	758	751	0.9
뉴질랜드	22,240	21,980	1.2	390	350	11.4	470	500	-6.0	1,945	1,932	0.7
영국	15,500	15,447	0.3	505	488	3.5	205	194	5.7	70	67	4.5
멕시코	12,850	12,750	0.8	448	446	0.4	235	233	0.9	168	167	0.6
아르헨티나	11,900	11,445	4.0	544	488	11.5	52	34	52.9	291	265	9.8
캐나다	10,185	10,035	1.5	540	523	3.3	122	118	3.4	90	90	0.0
호주	9,000	9,099	-1.1	360	373	-3.5	80	75	6.7	205	201	2.0
우크라이나	8,800	9,258	-4.9	182	180	1.1	72	89	-19.1	40	47	-14.9
벨라루스	7,830	7,765	0.8	355	346	2.6	121	120	0.8	183	175	4.6
일본	7,515	7,438	1.0	49	48	2.1	71	72	-1.4	150	140	7.1
한국	2,035	2,089	-2.6	45	45	0.0	0	0	-	10	13	-23.1
대만	437	437	0.0	0	0	-	0	0	-	0	0	-
필리핀	16	17	-5.9	2	2	0.0	0	0	-	0	0	-
칠레	0	0	-	0	0	-	0	0	-	81	87	-6.9
인도네시아	0	0	-	0	0	-	0	0	-	96	85	12.9
합계	544,077	539,602	0.8	21,857	21,396	2.2	11,271	11,133	1.2	9,308	9,421	-1.2

주 1) 2021년 한국의 원유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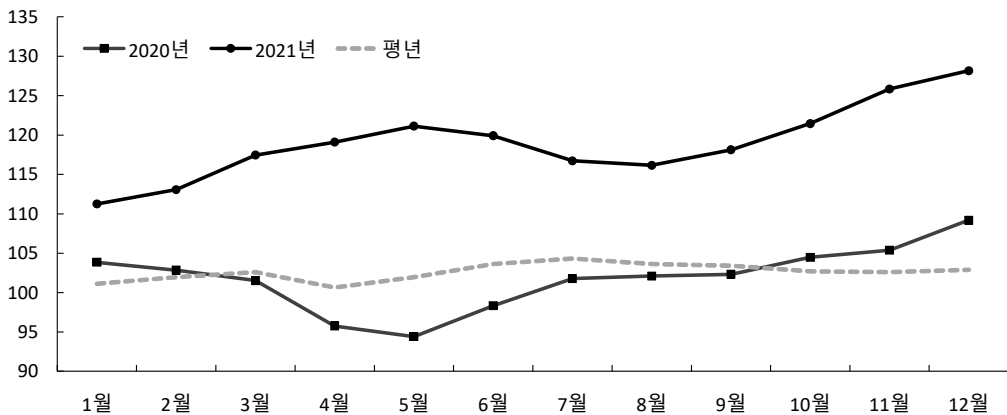
2) 분유는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합계임.

자료: USDA(2022.1.), KREI 농업관측센터

- 2021년 치즈 생산량은 EU,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등 주요 치즈 생산국들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2,186만 톤이었다. 버터 생산량 역시 전년보다 1.3% 증가하였으나, 분유는 주요 생산국인 EU, 미국, 중국 등의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 2021년 평균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년(101.8) 대비 17.2p 상승한 119.0을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였던 전년보다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년 5월에 최저치(94.4)를 기록한 후 반등하여 2021년 5월 (121.1)까지 상승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7~8월 북반구 휴가철의 시작으로 유제품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오세아니아의 수출공급량 증대 기대감 등으로 하락하여 8월 유제품 가격지수는 116.2였다.
- 9월 이후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공급량 감소로 인한 우유 가격 상승, 버터, 분유 등 유제품 재고 확보를 위한 수입수요 확대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12월 기준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는 128.2였다.

그림 17-27.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



자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3.2.3. 해외 수급 전망

- 주요 낙농 수출국의 2022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2022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억 33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착유우 마릿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지만 마리당 산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USDA, 2021. 12.).
- EU의 2022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억 4,67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젖소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약 1% 감소하나 마리당 산유량은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호주의 2022년 원유 생산량은 사료와 관개 수로 등 사양 여건과 농가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이동 규제와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로 노동력 공급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1% 증가한 910만 톤으로 전망된다.
- 뉴질랜드의 2022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2,23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1% 감소하지만 생산성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아르헨티나의 2022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210만 톤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농가 수익이 양호하여 생산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비 상승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7-35 】 주요 낙농 수출국 원유 생산량 전망

단위: 천 톤, %

국가	생산량		증감률
	2022년	2021년	
EU	146,700	145,700	0.7
미국	103,284	102,604	0.7
뉴질랜드	22,250	22,240	0.0
호주	9,100	9,000	1.1
아르헨티나	12,100	11,900	1.7

자료: USDA(2021. 12.)

-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2022년 원유 생산량 증가로 버터, 치즈, 분유 등 유제품의 수출량도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치즈는 원유 생산량 증가에도 내수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41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 EU의 치즈는 미국, 영국,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늘어 전년보다 1% 증가한 142만 톤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대일본 수출량은 2016~2020년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EU의 대미국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으나 항공기 보조금 분쟁으로 인하여 부과되었던 보복관세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2021. 6.) 하면서, 2022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뉴질랜드의 2022년 치즈 생산량은 버터, 탈지분유 등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수출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전년 대비 4.6% 감소한 35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2년 호주의 치즈 수출량은 중국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16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EU와 뉴질랜드의 버터 수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2.0%,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버터 수입량은 2016~2020년 연평균 9% 성장하였으며, 2022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7만 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36] 유제품 주요 수출 국가별 수출량 전망

단위: 천 톤, %

국가	치즈			버터			전지분유			탈지분유		
	2022년	2021년	증감률	2022년	2021년	증감률	2022년	2021년	증감률	2022년	2021년	증감률
미국	413	412	0.2	54	60	-10.0	-	-	-	917	887	3.4
EU	1,420	1,410	0.7	255	250	2.0	280	310	-9.7	825	820	0.6
뉴질랜드	355	372	-4.6	455	435	4.6	1,600	1,620	-1.2	355	350	1.4
호주	165	160	3.1	-	-	-	50	52	-3.8	120	140	-14.3
벨라루스	310	295	5.1	75	75	-	-	-	-	125	123	1.6
아르헨티나	-	-	-	-	-	-	145	138	5.1	-	-	-
합계	2,663	2,649	0.5	839	820	2.3	2,075	2,120	-2.1	2,342	2,320	0.9

자료: USDA(2021. 12.)

3.3. 원유 수급 전망

- 2022년 원유 생산량은 2021년 대비 4.1% 감소한 195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 젖소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3%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평년 수준의 기상과 조사료 수급 여건을 가정할 경우 마리당 산유량은 전년 대비 1%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 원유 생산량 전망치는 유업체 수요와 향후 기상 및 사료 수급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원유 생산량 감소세는 2022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비 상승 등 경영 부담 확대로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은 증가하고,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가 진행되어 전체 사육 마릿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산 음용유용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 멸균유, 치즈, 버터 등 저렴하고 다양한 수입 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산 원유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원유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 및 무관세 할당량 증가, 소비자 선호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유제품 수출량은 전체 수요량의 2.8%로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아시아 지역 유제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기준 1인당 소비가능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84.9kg로 전망된다. 향후 국내산 원유 소비는 감소하나 수입량 유제품 소비 증가로 총 소비량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원유 자급률은 45.2%로 전년보다 1%p 하락할 전망이다.

[표 17-37] 2022년 원유 수급 전망

구 분		2021년(p)	2022년 전망
공급 (천 톤)	이월 재고	141	107
	국내 생산	2,035	1,952
	수입	2,467	2,492
	계	4,643	4,551
수요 (천 톤)	국내 소비	4,407	4,322
	수출	129	130
	재고	107	98
	계	4,643	4,551
1인당 소비가능량(kg)		86.4	84.9
자급률(%)		46.2	45.2

주 1) 수입 및 수출은 수출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2) 재고는 월말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21)

시사점

-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분유 재고량이 급증하자 집유주체별로 기준 원유량 및 초과 원유가격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2021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2022년 이후에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수입 유제품의 관세 인하 및 무관세 할당량 증가와 소비자 선호 다양화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 낙농산업은 향후 경영 불안정성의 확대, 국내산 음용유 소비 감소, 수입 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유 중심의 생산 구조는 유제품 소비 증가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원유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원유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원유 자급률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록

1. 한육우

[부표 17-1] 한육우 사육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1,819	1,801	1,713	1,590
2001	1,476	1,507	1,485	1,406
2002	1,371	1,448	1,461	1,410
2003	1,337	1,423	1,464	1,480
2004	1,521	1,627	1,667	1,666
2005	1,654	1,757	1,825	1,819
2006	1,836	1,959	2,021	2,020
2007	2,043	2,179	2,220	2,201
2008	2,241	2,448	2,470	2,430
2009	2,481	2,599	2,641	2,635
2010	2,706	2,889	2,950	2,922
2011	2,881	3,053	3,044	2,950
2012	2,940	3,109	3,143	3,059
2013	2,966	3,064	3,043	2,918
2014	3,083	3,149	3,103	3,028
2015	2,896	2,984	2,996	2,909
2016	2,821	2,966	3,016	2,963
2017	2,885	3,034	3,120	3,020
2018	2,947	3,117	3,168	3,113
2019	3,059	3,231	3,269	3,237
2020	3,197	3,383	3,435	3,395
2021	3,373	3,568	3,584	

주 1) 2014년 이후 자료는 축산물 이력제 자료임.

2) 2021년 3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부표 17-2] 한육우 사육 농장수

단위: 천 가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336	326	305	290
2001	267	260	247	235
2002	227	224	218	212
2003	191	190	189	188
2004	189	189	189	189
2005	191	192	193	192
2006	192	192	191	190
2007	190	191	188	184
2008	188	190	186	181
2009	179	177	176	175
2010	176	175	175	172
2011	171	171	168	163
2012	159	157	153	147
2013	142	137	132	124
2014	132	127	123	116
2015	114	111	109	107
2016	105	104	103	102
2017	101	100	100	99
2018	98	97	97	97
2019	96	95	94	94
2020	94	93	93	93
2021	93	94	94	

주 1) 2014년 이후 자료는 축산물 이력제 자료임.

2) 2021년 3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부표 17-3] 한육우 등급판정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한우			육우
	암소	수소	거세우	
2000	463	318	34	114
2001	289	206	53	548
2002	216	142	88	446
2003	154	149	58	361
2004	124	130	70	324
2005	144	125	122	139
2006	167	153	105	426
2007	212	111	170	492
2008	263	104	220	588
2009	300	100	245	644
2010	263	40	299	91
2011	294	48	376	94
2012	437	57	349	79
2013	511	28	421	64
2014	448	30	443	67
2015	413	25	446	57
2016	354	20	363	64
2017	339	18	385	78
2018	328	17	391	73
2019	341	11	413	69
2020	347	10	406	72
2021	359	8	427	78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제18장

[부표 17-4] 소고기 수입량

단위: 천 톤

구 분	호주	미국	기타	합계
2005	101	-	41	143
2006	137	-	42	179
2007	147	15	41	203
2008	130	53	40	224
2009	117	50	31	198
2010	122	91	33	245
2011	145	107	37	289
2012	124	100	29	254
2013	143	89	25	257
2014	150	105	26	282
2015	164	112	22	299
2016	178	153	32	363
2017	150	169	26	344
2018	167	220	29	416
2019	163	238	26	427
2020	158	229	32	419
2021	160	255	38	45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표 17-5]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단위: 원/kg

구 분	한우						육우 평균
	전체평균	1 ⁺⁺ 등급	1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000	9,818	-	11,733	10,952	10,100	8,875	5,836
2001	11,983	-	13,993	13,080	12,096	10,868	6,270
2002	13,675	-	15,379	14,443	13,386	12,640	7,049
2003	14,783	-	17,737	16,885	15,357	12,702	6,347
2004	12,893	14,568	15,124	14,093	12,768	11,152	6,835
2005	14,552	16,978	15,712	14,808	13,742	12,657	8,756
2006	14,261	19,054	16,778	15,348	13,491	10,940	8,589
2007	14,489	18,349	16,060	14,672	13,322	12,123	8,341
2008	13,604	17,298	15,532	14,041	12,229	9,859	7,431
2009	15,881	19,486	17,700	16,457	14,204	11,205	8,735
2010	16,037	20,323	17,949	16,232	13,420	11,505	9,752
2011	12,782	16,749	14,666	13,265	10,497	7,883	7,317
2012	13,121	17,269	15,458	13,874	10,773	8,082	8,715
2013	12,814	16,844	14,661	13,114	10,656	8,468	7,815
2014	14,283	17,427	15,656	14,360	12,455	10,886	8,311
2015	16,284	19,121	17,649	16,301	14,392	12,653	10,060
2016	18,1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9,629
2017	16,719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8,390
2018	17,772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10,368
2019	17,965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10,096
2020	19,891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10,727
2021	21,169	25,182	22,746	20,983	16,673	12,937	11,649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제18장

2. 돼지

[부표 17-6]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7,887	8,126	8,371	8,214
2001	8,198	8,396	8,767	8,720
2002	8,719	8,791	9,033	8,974
2003	9,027	9,051	9,287	9,231
2004	9,006	9,017	9,046	8,908
2005	8,838	8,786	8,993	8,962
2006	9,010	9,032	9,369	9,382
2007	9,345	9,462	9,659	9,606
2008	8,981	9,153	9,284	9,087
2009	9,177	9,044	9,381	9,585
2010	9,768	9,728	9,901	9,881
2011	7,036	7,330	7,783	8,171
2012	8,851	9,433	9,937	9,916
2013	10,107	10,181	10,188	9,912
2014	9,698	9,680	9,966	10,090
2015	9,971	10,018	10,332	10,187
2016	10,315	10,355	10,669	10,367
2017	11,005	11,187	11,493	11,273
2018	11,156	11,304	11,641	11,333
2019	11,200	11,317	11,713	11,280
2020	11,208	11,088	11,365	11,078
2021	11,147	11,150	11,465	

주: 2017년 3분기부터 조사기준이 이력제 신고자료 기준 표본으로 조사하여 작성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부표 17-7] 돼지 모돈 사육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914	936	932	912
2001	910	941	951	955
2002	958	958	956	955
2003	985	985	988	975
2004	962	967	938	935
2005	948	956	965	966
2006	990	999	1,006	1,012
2007	1,006	1,022	1,013	1,004
2008	936	937	919	913
2009	927	916	940	966
2010	988	981	976	976
2011	732	793	835	903
2012	950	969	962	962
2013	973	952	897	895
2014	910	925	925	937
2015	940	948	943	958
2016	968	981	984	974
2017	1,045	1,062	1,052	1,058
2018	1,058	1,069	1,063	1,063
2019	1,063	1,070	1,063	1,026
2020	1,041	1,023	1,010	1,001
2021	1,025	1,041	1,024	

주: 2017년 3분기부터 조사기준이 이력제 신고자료 기준 표본으로 조사하여 작성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부표 17-8] 돼지 사육 가구수

단위: 가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24,239	24,639	23,511	23,841
2001	22,444	21,251	20,141	19,531
2002	18,641	17,382	16,927	17,437
2003	16,148	15,387	15,468	15,242
2004	13,939	13,581	13,251	13,268
2005	12,227	12,153	12,189	12,290
2006	11,525	11,361	11,448	11,309
2007	10,765	10,546	10,229	9,832
2008	7,929	8,038	7,842	7,681
2009	7,641	7,685	7,837	7,962
2010	7,796	7,908	7,715	7,347
2011	5,705	5,952	6,164	6,347
2012	6,444	6,525	6,404	6,040
2013	6,130	6,067	5,918	5,636
2014	5,441	5,315	5,174	5,177
2015	4,946	4,966	4,973	4,909
2016	4,761	4,666	4,622	4,574
2017	6,387	6,357	6,347	6,313
2018	6,275	6,195	6,196	6,188
2019	6,176	6,160	6,137	6,133
2020	6,192	6,189	6,180	6,078
2021	6,179	6,133	6,084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부표 17-9]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천 톤

구 분	미국	EU	캐나다	칠레	기타	합계
2000	7	54	9	-	26	96
2001	2	34	3	-	14	52
2002	5	48	6	2	10	71
2003	5	28	3	12	12	61
2004	13	41	9	17	28	109
2005	43	42	20	25	43	174
2006	61	49	26	22	52	211
2007	70	98	29	32	18	247
2008	72	81	28	19	13	214
2009	75	57	26	36	15	210
2010	51	65	18	30	16	179
2011	143	112	48	25	43	370
2012	111	72	23	28	43	276
2013	76	47	10	19	32	185
2014	94	84	11	18	66	274
2015	129	110	17	26	76	358
2016	106	99	13	22	78	318
2017	135	101	15	22	97	369
2018	185	127	22	26	104	464
2019	174	101	25	25	97	421
2020	129	70	22	23	67	311
2021	121	157	22	23	10	33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표 17-10] 가격

단위: 원/kg

구 분	도매가격 (탕박, 제주도 제외)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천원/마리(110kg)	소매가격		
			삼겹살(냉장)	수입 삼겹살 (냉동)	목살
2000	2,197	-	7,770	-	-
2001	2,343	-	8,450	-	-
2002	2,355	-	9,530	-	-
2003	2,189	-	9,700	-	-
2004	3,163	-	11,420	-	-
2005	3,386	-	14,890	-	-
2006	3,276	-	15,360	-	-
2007	2,865	-	14,240	-	-
2008	3,658	-	16,820	-	-
2009	4,050	-	18,240	-	-
2010	3,791	320	16,630	-	-
2011	5,681	465	20,240	-	-
2012	3,717	335	16,780	9,530	-
2013	3,405	301	16,090	9,560	-
2014	4,542	401	19,290	10,200	-
2015	4,585	417	20,100	10,810	-
2016	4,303	389	19,740	10,580	19,190
2017	4,640	417	20,950	10,820	20,700
2018	4,296	368	19,350	10,500	19,270
2019	3,779	285	18,430	10,250	17,930
2020	4,185	353	21,220	10,780	20,320
2021	4,722	398	24,290	13,090	22,97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축산정보센터

3. 젖소

[부표 17-11] 젖소 전체 사육 마릿수

단위: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536,773	542,518	541,933	543,708
2001	540,173	544,010	550,040	548,176
2002	548,483	545,350	543,161	543,587
2003	551,890	541,340	526,239	518,645
2004	517,031	509,136	503,205	497,261
2005	496,606	490,626	485,429	478,865
2006	481,785	471,414	467,602	464,056
2007	460,578	456,386	455,179	453,403
2008	449,561	445,213	444,748	445,754
2009	447,793	439,191	437,858	444,648
2010	449,350	431,928	429,368	429,547
2011	396,466	402,528	403,828	403,689
2012	403,922	409,970	417,306	420,113
2013	419,509	418,795	422,033	424,202
2014	436,739	436,061	441,849	444,552
2015	438,968	432,572	430,289	428,311
2016	424,676	419,768	420,820	417,937
2017	415,831	413,843	411,378	408,830
2018	408,046	404,525	406,977	407,894
2019	407,126	400,799	404,004	408,135
2020	409,223	405,828	408,132	409,790
2021	406,013	399,680	400,357	

주: 2014년 이후 자료는 축산물 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부표 17-12] 원유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공급계				수요계			
	전기이월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재고	
2000	44	2,253	640	2,936	2,803	8	124	2,936
2001	124	2,339	653	3,116	3,026	20	70	3,116
2002	70	2,537	646	3,253	3,060	32	161	3,253
2003	161	2,366	604	3,131	2,990	47	94	3,131
2004	94	2,255	842	3,192	3,074	49	68	3,192
2005	68	2,229	898	3,195	3,028	50	116	3,195
2006	116	2,176	882	3,175	3,070	52	53	3,175
2007	53	2,188	968	3,209	3,054	47	107	3,209
2008	107	2,139	885	3,131	2,980	55	96	3,131
2009	96	2,110	959	3,165	3,036	74	55	3,165
2010	55	2,073	1,135	3,262	3,171	78	13	3,262
2011	13	1,889	1,713	3,614	3,518	78	18	3,614
2012	18	2,111	1,414	3,544	3,359	93	92	3,544
2013	92	2,093	1,586	3,771	3,582	96	93	3,771
2014	93	2,214	1,683	3,990	3,646	111	233	3,990
2015	233	2,168	1,788	4,189	3,834	102	253	4,189
2016	253	2,070	1,832	4,155	3,914	109	132	4,155
2017	132	2,058	2,116	4,306	4,092	107	108	4,306
2018	108	2,041	2,198	4,347	4,138	126	82	4,347
2019	82	2,049	2,304	4,436	4,228	119	89	4,436
2020	89	2,089	2,434	4,611	4,345	125	141	4,611

주: 2014년 이후 자료는 축산물 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